

투데이 칼럼

좋은 인상의 대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한다든지, 고객을 만나 대화를 하거나 상사나 거래처 사람에게 설명이나 보고 등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한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 친구와 연인 등 사적인 말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막상 남에게 말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오해 받지 않을까?' 하는 등 괜한 걱정으로 마음이 위축되어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을 의식하여 대화하기를 주저한다.

영업사원 S씨는 어느 결혼 파로연식에서 옆에 앉아 있던 신사분에게 큰 마음을 먹고 좋은 인상으로 말을 걸었다가 인연이 되어 대기업의 임원이었던 그 신사를 고객으로 모실 수 있었고 그 결과 사내에서 제일의 매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성공의 데얼에 올라 설 수 있었다.

사람은 태어났면서 만남과 관계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커다란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다. 만남과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첫인상은 물론 좋은 인상의 대화가 중요하며, 호감을 주는 대화요령을 살펴보자.

첫째, 상대방을 분석하여 준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고 당일을 맞는다. 그러므로 긴장감이 높아질 뿐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일이나 사생활에서도 처음 만나는



김 양 옥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사람과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허물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보다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상대방과 허물 없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그 사람과 아는 사람을 통해 간접정보를 구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활용하자. 경력, 출신지, 가족구성, 직장 등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 정보를 분석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인간상이 떠오르게 된다.

또한 스몰토크(small talk)를 활용하여 사적대화, 세상사는 이야기, 관심사, 욕구공략으로 관심을 갖게 할 때 상대방은 그런 노력을 이해하고 친근감을 갖게 되고 마음을 열 것이다.

둘째, 자기소개를 준비한다.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화제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다. 자신의 정보를 상

대방에게 아무렇지 않게 알려서 자신을 이해 하도록 말한다. 포인트는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를 잘 생각해서 관심을 갖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랑하는 말투나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의식하여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부드럽고 친근한 대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이해시킴으로써 상대방과 거리가 좁혀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 양호한 인간관계가 되는 것이다.

요사이 지도자급의 존경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솔한 대화방법, 부드러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존경받는데 너무나 경직되고 속마음을 너무 달아놓고 있어 안타깝다.

현대의 지도자는 권위적인 태도를 벗어나 감성이 있고 따뜻하고 포근한 행동, 부드럽고 다정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셋째, 사용할 수 있는 화제를 준비한다.

사전에 약속이 없어서 갑자기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 경

우가 흔히 있다. 이런 경우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지 모르고 거북한 분위기가 흐르는 경우가 있다. 좋은 인간관계는 커녕 '한시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 하고 생각한다. 이것은 모처럼의 기회를 살릴 수 없는 것이므로 사전 준비를 하는 대화를 순조롭게 한다.

넷째, 경어를 올바르게 준비하여 사용한다.

우리말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한다. 남을 존경하는 '경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명하는 말이 경어다. 경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화법을 쓰면 상대방은 호감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장님, 어제 갔습니까?" 가 아니고, "사장님 어제 가셨습니까?" 가 올바른 경어사용이다. 경어 사용시 주의할 점은 경어부족, 경어의 잘못된 사용,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

다섯째, 즐거운 말을 준비한다. 감성과 표현의 시대, 문화와 여성의 시대에는 밝은 대화, 유머와 위트가 있는 말을 해야 좋아한다.

즐길 줄 아는 사람,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경영업무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문조사가 있다. 상대방에 관한 인상, 밝은 모습을 보여 주어 호감받는 사람이 되자.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인상의 대화, 따뜻하고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하여 즐겁고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보자.

사설

문지마 범죄 매년 40건

광주 고등학생 살해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다. 다만 피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공개 시점은 미뤄졌다. 이번 사건 같은 불특정인을 향한 무차별 공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은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 보름 뒤에는 경기 서현역에서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무고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인을 향한 무차별 공격은 흔히 문지마 범죄라 부른다. 경찰은 '이상 동기 범죄'라는 용어를 쓴다. 일단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간 일면식이 없고, 범행 동기가 불명하며, 수법이 잔혹하다.

관련 통계는 3년 치가 전무다. 해마다 40건 안팎으로 발생한다. 살인이나 살인미수자 전체의 3분의 1 정도다. 일본은 30여 년간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길거리 약마'라는 뜻의 '도리마' 범죄로 부른다. 범행 동기는 '자신의 처지 불만', '특정인에 대한 불만', '자살 사형 욕구', '교도소로 도피', '살인에 대한 흥미'로 분류했다.

여기에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빈곤이 결합해 도리마가 만들어진다고 봤다. 일본은 내각에 고립 대책 담당 부서를 만드는 등 맞춤형 처방을 내렸다.

경찰청은 이번 광주 사건을 계기로 순찰과 점검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예방책이 될지는 회의적이다. 정확한 진단에 따른 한국형 처방이 필요하다.

북한 핵포기 불가 선언

북한이 핵 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시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핵포기 불가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로 향하는 길이 더 험난해진 걸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개정된 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을 명시한 대목이다.

핵 사용 권한 위임 조항과 함께 신설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격 받았을 때 자동 보복할 수 있다는 경고성 의미가 더불어 '핵 포기는 위협'이란 인식이 강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원장의 설명으로는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는 대외적인 명확한 선언으로서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명기를 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핵 보유는 '현

법에 따른 의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NPT 조약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북한은 핵탄두를 최대 50개 만들었고, 추가로 40개 제조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현실을 마냥 외면하긴 어렵다는 듯 미국 내 대북 강경파 인사조차 "비핵화는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북한 핵을 현 단계에서 안정화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출구는 장기적인 목표로 미루는 이 대안이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북핵 동결로 시작해 핵무기를 축소하고 '핵 없는 한반도'로 가는 단계적 실용적 접근을 지속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독자제언

농촌지역 농번기 교통사고 예방, 모두의 관심 필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촌지역 도로 곳곳에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 운행이 크게 늘고 있다. 농번기는 농민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이지만, 동시에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고령 운전자가 많고, 농기계의 특수한 구조와 도로 환경이 맞물리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기계는 일반 차량과 달리 최고속도가 낮고 방향지시등이나 제동등 등

안전장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새벽이나 해질 무렵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시간대에는 뒤따르던 차량이 농기계를 늦게 발견해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농촌지역 도로는 폭이 좁고 굽은 길이 많아 중앙선 침범이나 교행중 사고 위험도 높다.

특히 농촌지역 교통사고는 단순 접촉사고에 그치지 않고 중앙이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령 운전자 비율이 높아 사고 발생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안전벨트나 보호장비 착용이 미흡한 경우

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농번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배려와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일반 운전자들은 농기계를 발견하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무리한 추월을 자제해야 한다. 농기계 운전자 역시 야간 반사판 부착, 등화장치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농기계 후면 반사지 부착 지원, 고령농업인 교통안전 교육, 마을 방송을 통한 홍보활동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 모두가 "농기계도 도로 위의 차량"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풍요로운 결실을 준비하는 농번기, 안전 또한 함께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한 때다.

전병연 교향경찰서 해리파출소 경위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